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1호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 703-0755



甲申年 신년교례회 : 지난 1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무떡을 절단했다. (좌로부터 李富榮·金漢淑·孫一根·吳明·權昇鎭·金泳三·林光洙·鄭雲燦·鄭元植·白忠哉·洪性大·尹勳煥동문)

〈커버스토리 3~4면〉

비전과 희망이 충만했다 동문 모두가 한 마음!



▲ 모교소식 12면
故 全在豪동문 무친이 모교에 2억원 출연

▲ 동문들 찾아서 8~9면
서울국제포럼 李洪九이사장



▲ Noblesse Oblige 24면
모교 분당병원 白蔭民의과과장

▲ 나의 건강법 15면
민체학원 白樂院이사장

만든 사람 李曉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燾 편집기자 朴宰亨, 裴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이 땅에서 최고기가
이처럼 주대접을 받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한
반도 반만년 역사상 초
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
다. 「이밤에 고깃국」은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서민들에게 「곰의 밥상」
이었다. 이는 한때 남북대
결구조에서 체제의 우월성
을 가늠하는 상징적 지표
가 되기도 했다. 그 고깃
기가 광주병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천덕꾸러기로
떨어졌다.

미약한 아이러니가 아닌
수 없다. 그러나 어쩌랴
라. 총련의 예견된 일이었
으니. 오로지 높은 생산성
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면지의 자연의 일출한 경
고가 아니겠는가. 전문가
들은 동물성 사료에서 광
우병의 원인을 찾고 있다.
채식만을 하도록 설계된
소에게 육식을 강요함으로
써 생체구조에 혼란이 빚
어지면서 무서운 병이 발
생한 것이라는 설
명이다. 마치 자
연의 섭리를 무시
한 인간의 일탈에
예이조라는 무서
운 철퇴가 내려졌
듯.

그럼 도대체 왜
현대의 축산농가
는 채식주의자에
게 육식을 강요하
는가. 상업적 축
산은 이미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
다. 비야프르 과학기술의 영역
을 넘나들지 오래이다. 현대의
축산은 과학기술과 생산성의 논
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산성
이 떨어지는 축산농가나, 가족은
냉정하게 도태되기 마련이다.
단기간에 소를 살찌우는 사육제
계나 사육방식이 끝없이 개발되
고 있다. 생산성을 추구하는 축



드라마작가

세상은 산수가 아닌 것을



高永才

한겨레신문 콘텐츠기획장

그러나 그 독소
도 무섭다. 본말
의 전도, 맹목적
인 무한 경쟁, 인
간의 존엄성 부
정, 단순한 산술
적 믿음의 확산 등
이 그것이다. 생
산성은 숫자로 표
시된다. 그러나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세상의 뒤편
에 그 오묘한 맛이 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산성이
은 회사일수록 그 숫자에 빠
다. 그러나 그 숫자는 생산성 너머의
가치와 삶의 여향, 그리고 노동
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데도 밝은
눈을 가렸다는 의문이다. 오
히려 그 반대라는 역설이 존재하
를 어쩌랴. 역시 세상은 산수
가 아니다. (본문 논설위원)

산기술이 무서운 병을
키운 셈이다.
생산성 논리는 바야흐
로 현대사회의 종교가
되고 있다. 기업문화는
승두라제 바뀌고 있다.
인간적인 관계는 경쟁과 능력을
자대로 한 삼벌한 판재로 급속하
게 탈바꿈했다. 학원에서
는 「죽임제」 입시전문가
가 인정받고 있다. 공교육
은 생산성의 논리 앞에 무
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경
연마인드의 중요성이 문화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들불
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생산성을 추구하는 현대
의 흐름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국제
적 경쟁을 통해 기업은 스
스로의 존재가치를 높인
다. 정치, 특히 오는 4월
의 총선 정치권에서도 일
단 호응을 얻어 낼 것이
다. 사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생산성 논리는 전반적
으로 기여할 터이다.

그러나 그 독소
도 무섭다. 본말
의 전도, 맹목적
인 무한 경쟁, 인
간의 존엄성 부
정, 단순한 산술
적 믿음의 확산 등
이 그것이다. 생
산성은 숫자로 표
시된다. 그러나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세상의 뒤편
에 그 오묘한 맛이 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산성이
은 회사일수록 그 숫자에 빠
다. 그러나 그 숫자는 생산성 너머의
가치와 삶의 여향, 그리고 노동
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데도 밝은
눈을 가렸다는 의문이다. 오
히려 그 반대라는 역설이 존재하
를 어쩌랴. 역시 세상은 산수
가 아니다. (본문 논설위원)

동문잡담

재외 한인문화 저변 확대 노력 필요

1920~30년대의 작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가증되는 일체의 침탈로 고통받는 사
람들, 특히 고국을 떠나 만주로 이주한 사람
들의 참담한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가들에 대
해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한때 만주
에 거주했거나 혹은 만주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로는 **崔曙海**, **姜敬愛** 등이 있
었다.

이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천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재만한국문학은 없었을까 하는 곳으로 생각이
미치게 됐다.

임재경씨가 재만한국문학에 관한 자료는 지
금도 그렇지만 1970~80년대에 있어서는 求
得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도대
체 언제부터 몇 명의 작가가 어떠한 작품에 어
디에 발표했는지,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구해
야 하는지 막막한 뿐이었다. 선행 연구도 거
의 없었으니 주위에 자문을 구할만한 사람도
드물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와 연구에 활기를 띠게 한
계기는 1988년 월북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와
때마침 중국 연변에서 간행된 도서가 소개
되기 시작했고, 또 그 해에 비록 일부였지만
만주에서 발행됐던 **滿鮮日報**(1939년 12월 ~
1940년 9월)가 국내의 한 출판사에 의해 영
인 되면서부터였다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과의 교신은 물론, 중
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내용까지 빈번해지면
서 연변대학의 K교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K교수와 필자는
연변도 비슷했고 다같이 임재경씨의 재만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터여서 언제나 화제
가 쏠렸다.

K교수는 창립직후의 연변대학에서 원로작가
인 **金鼎泰** 선생(1991년 11월 22일 작고)의 강
의를 들었을 뿐더러 지금도 가까이 모시고 있
다면서 곤란을 알려주기도 했다.

K교수는 필자가 **金鼎泰** 선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작품도 많이 구득하지 못했다
는 것을 알자 「김창경단편소설집」 해방 전
편 1~(1982년, 중국요녕인민출판사)를 보
내주었다. 영인본으로 간행된 만선일보에는

金鼎泰의 소설이 6편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더 많은 자료 확보에 고심하고 있던 차에 14
편의 작품이 실려있는 「김창경단편소설집」
은 필자의 재만한국문학 연구가 **崔曙海**, **姜敬愛**,
安壽吉 등에 이어 **金鼎泰**까지 확대되는데
큰 힘이 돼주었다.

그 외에도 K교수는 인편을 통해서라도 한
국에 올 때마다 각종 자료를 갖다 주어 **金鼎泰**
에 관한 필자는 적지 않은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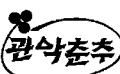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필자는 1990년 「임재경
씨가 재만한국문학연구」라는 책을 간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재만한국문학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조그마한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광범위한 임재경씨가 재만한국문학의 연구
를 위해서는 각종 자료(시대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자료로는 관동군, 滿鐵, 괴뢰 만주국의
이주인 관계 자료, 문화적 측면의 자료로는
만선일보의 원전 확보와 실제 규명 및 각종 작
품집의 수집, 작가 관계의 자료로는 인적 사
랑과 작품 연보 등)를 구비한 다음 각 작가별
로 전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엄정한 평가 작업을 유기적인 연관 관계 아래
펼쳐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때 드물었던 재외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는 좀 식은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우
리 나라 현대문학사의 다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이 방면에 뜻을 같이 하는 동학들의 지속
적인 연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蔡 璵

(54년 文理大卒)
前숙명여대 교수

관악출주

엘리트란 최고의 능력으로 정
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의
정착을 결정하고 조장을 이끌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선
배민」은 소수이다.

V.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는 엘리
트의 지직이나 요건을 변화시킨 그
래도 역사는 엘리트가 만든다고 주
장했다. 인터넷 확산 등으로 대중사
회가 도래했다고 해도 엘리트의 시
대적 역할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졸업생은 누가 뭐라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
다. 서울대 출신이 이 땅의 발전과 부흥에 얼마나 많
은 몫을 담당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전직 대통령과 현직 장관, 각 정
당 주요 인물들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업인의 수는 지
금까지 한국의 지평에는 서울대 동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근대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나 서울대 졸업
생에 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정착시

키고 보릿고개 대신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견인차 노릇
을 한 공은 간 데 없이 고도 성장의 후유증만을 앞세
워 사회 부조리의 모든 대목이 마치 서울대와 졸업생
탓 인양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엘리트주의를 문제삼
아 특정 대화를 비난하는 건 우물보나 영국 등 선진국
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도

가 지나치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상은
급변하고 과거 전리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희미해
져 무너진다.

자유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평등주의와 무척
입만 인기영합주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너무
빠른 이동이 가져온 가치관 변화로 경제는 물론, 정
치·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
다.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기업에 비롯한 조직

과 개인의 앞날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서울대 출신의 책임은 막중하
다. 23년 서울대 출신의 각자 전문성과 혁신이라는
리더의 요건을 갖춰 이 땅 엘리트로서의 소임을 다함
으로써 다시금 조국과 민족을 눈부신 번영의 길에 서
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질서와 경연의 대상
이 아닌 신뢰와 사람을 함께 받는
동반자적 엘리트가 돼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자면 뛰어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는 상황대
처 능력을 기르는 게 필수적이다.

검은 태도로 주위를 살피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자연스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서
울대 폐지론」같은 어이없는 주장은 사라질 것이다.
건장하고 참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 참여하고 협력
해 보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이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聖)

동반자적 엘리트의 길

2004년 甲申年 신년교례회 성황리 개최

林회장 “관용과 엄격함 지닌 서울大人 돼야” 鄭총장 “모교의 질적 변화로 교육발전 주도”



좌로부터 鄭雲燦·金炳日·李熙範·吳明·林光洙등.



좌로부터 鄭雲燦·具聖會·李大淳·朴柱錫·金正吉·林光洙등.



좌로부터 鄭雲燦·金后坤·金錦喜·崔龍五·孫京植·林光洙등.



좌로부터 鄭雲燦·白南園·申碩衍·林光洙등.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3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본회 許 襄사부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회장은 「통일조국을 눈앞에 둔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서울대를 세계 속의 「Top 10 대학」으로,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기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조국에 대한 투철한 책임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높은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와 진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자기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는 스스로의 품격을 가져야 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언제나 모교와 조국의 부름에 선두에서 서서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서울대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은 인사말에서 「미국의 한 저명한 과학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세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집안과 접촉이 없는 지역까지 행동이 확산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백마리개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이처럼 申申年 원숭이의 해를 맞아 총장을 비롯한 모교 구성원 전체가 한국 교육의 발전을 주도하는 「백마리의 원숭이」가 되어 모교의 질적인 변화가 우리 교육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전력 전주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또 한 해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한 해가 당도했기에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취해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새해의 출발선에 서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많이 웃고 격정을 덜어 주어 총동창회가 선후배 동문간

우정의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좋은 친구들 모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 金泳三·鄭元植교문,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勳煥·金廣澈·洪性大·吳明부회장, 모교 權壽赫전임총장, 鄭雲燦총장, 白忠欽대학원장, 李富榮국회의원이 申申年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무책을 절단했다.

만찬에 앞서 태너 朴恩珠(68년 졸업·前모교 교수)동문과 15명의 재학생들이 축가로 「축배의 노래」 「심청가」 「춘향가」 「오 솔레미오」 등 성악과 민요, 국악이 접목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으며, 金泳三교문이 건배제를 통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金泳三교문은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에게 동창회관 신관 건립에 세달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전임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지방지부 회장인 朴明子(간호대)·李義澈(생활과학대)·李大淳(법대)·金正吉(음대)·李成九(교대원)·具聖會(보대원)·韓昇株(행대원)·孫京植(AMP)·禹翼仙(SGS)·金錦喜(AIC)·崔龍五(관악부역인회)·李乃均(광주·전남지부)·文大澤(제주지부)·崔文錫(진주지부)·尹鍾求(포항지부)등은, 전임 관악회 감사인 朴柱錫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최근 입각한 과학기술부 및 명장관, 산업자원부 李熙範장관, 기획예산처 金炳日장관, 청와대 朴憲宗정책실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지난해 9월 본회에 특기장학금 1억1천2백(4면에 계속)

甲申年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내스티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04년 3월 19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신라호텔 2층 다이내스티룸
- ◆내 용: ① 임원 개선
②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③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 사업계획 보고
④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제145차·관악회 제89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이전 오후 5시부터 다이내스티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김영초교문 건배제



白秉曉교문



元元權교문



孫根幹임부회장



權秉鎭전임총장



趙完圭전임총장

(3면에 이어)

여 민원을 출연한 수학과동창회 (회장 김영학)와 이날 행사에서 독서장학금 1억원을 출연한 보건대학원동창회 (회장申碩軒)에 감사패를 전했다.

교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신포니에타 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된 만찬에서 각계 동문은 대표로 분회 白樂院:鄭元權교문, 孫根幹상임부회장, 李世中·金宗鎭:卞柱仙·吳明부회장, 모교 權秉鎭:趙完圭전임총장, 白忠鉉대학원장, 기획예산처 金炳日장관, 산업자원부 李熙範장관, 尹永寬前외교통상부 장관, 숙명여대 金南祚 명예교수, 단국대 鄭昭盛교수, 車萬會:李東吳동문 등이 차례 축단을 했다.

白樂院교문은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불이 된다고 모두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대학 사회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鄭元權교문은 「화합이 있을 때 우리 서울대인은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배출할 수 있으며, 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세계에는 서로 화합하는 모교와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世中부회장은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라는 동창회의 모토를 항상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자」고 강조했고, 孫根幹상임부회장은 「동창회의 구실은 1백세까지 살아도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다함께!」를 외쳤다.

이어 모교 權秉鎭전임총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최고 대학을 「무용문」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유독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서울대 유용문을 아무런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어디로 보나 서울대는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역설했다.

또 문리대 64학번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鄭昭盛교수는 「문리대가 인문대로 바뀌면서 문리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다」며 「모교 鄭憲燾총장에게 특별히 선배와 후배, 옛 단과대학과 현재의 단과대학을 연결 지어주는 작은 배려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李熙範장관은 「새해 화두가 과학기술중심 사회를 건설하여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 동문으로 짜여 있어 세 부처가 국민과 서울대인이 거는 기대와 비관을 항상 명심하며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졸업한 李東吳동문은 건강법을 소개하면서 「조부께서는 아침에 검은콩, 들깨, 알뜰, 참쌀을 갈아 냉수와 함께 마셨고, 점심에는 보신탄, 저녁에는 참쌀로 만든 인절미와 매일 박카스를 드시며 1백세까지 등산을 하셨다」며 「동문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건강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분회 金道和:河永基·白樂院:白文基·姜信浩·金泳三·李聖秀·鄭元權교문,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根幹상임부회장, 韓斗綱·尹勳燾:徐廷和·李秉熙:朴熙伯·高炳佑:李世中·趙南煜·張翼龍·李東一·金宗鎭:金鎭澈:孔大植·孫京植:洪性大·卞柱仙·金學俊:吳明:鄭憲始부회장, 方孝宣전임감사, 許憲사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鄭新奎:安聖哲·金秉順·金一燾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상임이사인 俞澈子(간호대)·成百鎔(공대)·李倡子(미대)·李相赫(법대)·李禮植(약대)·梁源植(치대)·成鍾漢(교대원)·申碩軒(보대원)·文憲一(AIC)등은, 본보 朴世熙:南仲九·丘月煥:安國正·李憲衡:徐玉植·金仁圭·朴時龍:朴聖姬는실위원, 관악연인회인 曹炳話:朴勝俊간사위원, 수원지부 俞秉濤회장, 모교 權秉鎭:趙完圭전임총장, 鄭憲燾총장, 白忠鉉대학원장, 黃俊烈화재처장, 공대 韓民九회장, 수의대 李文漢회장, 의대 李宗郁회장, 보대원 白南淵원장, 대학신문 李昌敏주진, 金夏寬:李茂夏·朱尙步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밖에 尹永寬 前외교통상부 장관, 李富榮 金樞泰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한회계법인 李燦河대표, 한국코트렐 李達雨회장, 한국지역정책연구원 宋肅植이사장, 법무법인 한누리 金祥源고문변호사, 한국금융신문 李祥根회장, 한국대중음악연구소 崔喜準이사장, 李康茂 前체육교육과 동창회장, 인터비즈니스팀 禹仁性회장, 대한약학정보학회단 金熙中이사장, 辛鎭鎭 前문화관광부 차관, 대한약사회 元嘉鎭회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表)



白忠鉉대학원장



金宗鎭부회장



吳明정관



金炳日장관



李熙範장관



尹永寬前장관



李世中부회장



卞柱仙부회장



金南祚동문



車萬會동문



李東吳동문



鄭昭盛동문

미술작품



「영혼, 그림자, 빛」, printed on canvas, 88×124cm, 2004.

朴南姬作

〈작가약력〉

- ▲74년 모교 회화과 졸업
- ▲76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82년 프랑스문화원 초대 개원진
- ▲87년 Lumino - Dynamism '87 (일트 동전)
- ▲90년 鄭鎭宇·朴泰熙 부작품전시
- ▲이년 장백어류작가전
- 한미어류작가감성전
- ▲02년 제1회 한국가공미술전
- 하문시미술화비전
- ▲03년 대구미술협회전, 한국연구상화전, 예문전
- ▲현재 한국미술 회관, 대구광역시 건축실업의원, 경북대 미술학과 교수

대구·경북지부

李弘中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대구·경북지부 동창회(회장 池弘源)는 지난 1월 14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식실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金乙永(65년 法大卒·서한 회장) 수석부회장, 李弘中(71년 工大卒·화성산업 사장) 부회장 등 동창회 임원을 비롯해 尹 植(64년 文理大卒)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 曹海寧(65년 法大卒) 대구광역시장, 대구사이버대 李英世(69년 商大卒) 총장, 姜完求(69년 法大卒) 대구고법원장, 대구대 李在奎(70년 商大卒) 총장, 金銀基(71년 法大卒) 대구지법장, 金仁鉄(71년 法大卒) 대구변호사회장, 대구광역시 金範鎔(73년 商大卒) 정부부시장, 李源順(74년 工大卒) 국회의원, 林來玄(77년 法大卒) 대구고검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했다.

金範鎔(86년 社會大卒·대구 방송 편성제작과 PD) 동문의 사

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 협력, 영광'이라는 동창회의 모토에 맞추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池시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대구지역에 아픈 기억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으나 많은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도와준 데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창회는 오랫동안 간사

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창회에 업

과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李永植(77년 畜大

주·대구산업정보대 교수) 동문

을 비롯한 유대 동문과 재학생

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는 가

운데 동문들은 뷔페식 만찬을

즐거워하는 한 때를 보냈다.

사향을 상생으로 풀어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장학재단인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은 2월달 모교 대학원생 20명에게 1학기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포항지부

장학금·장려금 전례

포항지부 동창회(회장 金熙龍)는 지난 1월 13일 포항시내 로얄시그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李繼漢(69년 文理大卒) 상근 부회장, 鄭益植(73년 商大卒) 포항광역시장, 洪相福(69년 工大卒)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을 비롯해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金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여러 동문들이 동창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산악회 모임이 변모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게 돼 앞으로 많은 동문들이 활발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창회는 포항지역에서 모교에 입학한 재학생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각각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동문 자녀 모교 입학식 4명에게 장학금 3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安相龍(85년 工大卒) 동문을 비롯한 동문 4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3월 3일 정기총회 개최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壽鎔)는 지난 1월 15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복원실에서 KCC 鄭少晔(70년卒) 대표, 서울디지털대 宋 復(70년卒) 석좌교수, 李濟衡(71년卒) 부중앙일보 상임고문, 회장권리장사 金太文(73년卒) 사장, 유원인이 무역 柳鍾秀(73년卒) 대표,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李民熙(75년卒) 교수, 南善龍(77년卒) KBS방송문화연구소장,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朱東亮(85년卒) 교수, 김석수 李樹源(87년卒) 대표, 모교 梁承穆(82년卒)·尹鍾敏(87년卒)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신년모임을 가졌다.

金희장은 '향후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李樹源총무는 '학부 동창회 모임 때 통할 논제를 통해 협의하여 젊은 후배들을 주축으로 동창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이 아카데미 차비도 동창회와 통합 논제를 심도 있게 논의, 2004년 가을경 통합 모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3월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공과대학

신년 맞이하는 덕담의 장 마련



공과대학 동창회(회장 成百詮)는 지난 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지니아하우스에서 본회 林光洙(52년卒) 회장, 孔大植(60년卒) 부회장, 신암문화재단 鄭植奎(52년卒·관악회 이사) 이사장, 모교 李基俊(61년卒·전임 총장) 명예교수, 韓民九(71년卒) 학장, 산업자원부 李熙龍(71년卒) 장관을 비롯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를 맞아 우리 공대인들이 모교인 공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모든 동문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李熙龍장관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보니 공대인

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앞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 林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동문들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총장회 창회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의 목적 사업에 전념하여 모교 발전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서울대 출신의 언론인들을 결집시켜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악인문인 화를 발족시켰고 동창회 신년 간담회 부지 선정에 관한 중지를 모을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말했다. 또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상과대학

전임 회장에 공로패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차용晟)는 지난 1월 8일 새춘동회회관 새춘동 소년회관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계선은 더욱 심해지고 집단간 갈등, 세대간 격차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약하는 동문들이 극치를 갖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창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동문들의 손에 의해 가꾸어지고 동문들의 자부심에 힘입어 있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동기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동문 모두의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교 鄭憲振총장은 축사에서 '세계화 시대를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30~40대 동문들과 개발경제 시대의 주역인 50~60대 동문들이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 주길 바라며, 젊은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패기가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로 보완된다면 우리 나라가 제2의 도약을 실현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계 감사보고에 이어 차회장이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한 전임 회장인 高炳佑(56년卒·산신右) 명예회장, 전임 상임부회장인 洪龍泰(72년卒) 부회장에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특기장학금 제도에 많은 동문들의 찬사와 신봉을 부탁했다. (亨)

전자동문회

신임 장관 3명에 꽃다발 증정



좌로부터 李南郁·成宏模·金貞福·尹龍龍·李梓旭·吳明·李熙龍·陳大濟·李忠雄·韓民九·李忠

전자동문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1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지니아하우스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 관리자 3대 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과학기술부 吳 明(66년卒) 장관, 산업자원부 李熙龍(71년卒) 장관, 정보통신부 陳大濟(74년

卒) 장관에게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세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발전과 과학기술진흥 사회

를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

마평

李元龍



成事 여부를 떠나 이것이 서울대 精神!

간호대학

새 회원 주소록·회보 발간기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澈子)는 지난 1월 6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학생휴게실에서 모교 洪福信(54년卒) 명예교수, 李美雨(64년卒)·朴敏俊(70년卒)교수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俞회장은 인사말에서 '2003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화기에 예한 분위기 속에서 마친 한 해였다'며 '특히 우리 동문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가도 함께 즐길 줄 아는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올해는 동문 개개인의 역할을 한데 모아 큰 일을 발휘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동창회 활동보고를 통해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1회 골프대회 및 동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첫 해 이

사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각 기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새 회원 주소록과 동창회보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병원 劉玉秀(75년卒)간호부장, 모교 분당병원 李賢淑(77년卒)간호부장, 삼성서울병원 成英熙(76년卒)간호본부장, 서울아산병원 李英善(80년卒)병동간호팀장 등이 소속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을 소개했다.

또 차려진(64년卒)부회장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개최되는 동산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金彩淑(66년卒)부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및 베품시장 행사에 성황을 올리고, 의류 등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들을 많이 기증해달라고 말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신년회서 「화합의 한 해」 기원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지난 1월 15일 양재동 농업유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尹회장의 인사말과 건배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만찬을 즐기고 새해 동창회의 화합과 모교 발전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李茂夏(48년卒)·李秀一(李昇九)·金秀彦(金完培)·李俊浩(盧在善)·盧熙明(張珍成)·趙成仁(羅承日)교수, 신장 엔지니어링 鄭鎮錫(鄭錫)회장, 도서출판 한림자본사 鄭秉起(鄭秉起)대표, 한국단미사료협회 俞秉植(俞秉植)회장, 일성화학 鄭源俊(鄭源俊)사장, 李銀鍾(李銀鍾)前농촌진흥청장, 참깨나무골리집 張休東(張休東)회장, 건국대 金東泰(金東泰)서좌교수, 成培水(成培水)前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농업유통 金圭碩(金圭碩)사장,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姜正一(姜正一)소장, 崔洋夫(崔洋夫)아르헨티나 대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權五俊(權五俊)사장, 농업중앙회 李相慶(李相慶)상무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리대 65동기회

동기문집 발간 예정

1965년에 입학한 동문들로 구성된 문리대 65동기회(회장 金斗煥)는 최근 JW메리어트호텔 미림점에서 孫鍾圭(孫鍾圭)지도자, 극본배운 朴熙俊(朴熙俊)사장,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珍(朴明珍)교수, 영동개발 李承吉(李承吉)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송년모임의 인사말, 宋泰鎭(宋泰鎭)전임회장의 축사에 이어 鄭德雲(鄭德雲)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동문으로 시절로 돌아간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를 즐겼으며, 남극 세종기지에서의 연구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蔣昇權(蔣昇權)등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05년 입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입생 시절, 캠퍼스 추억, 복학하기, 유행하기, 후학들에게 한마디 등이 담긴 동기문집을 발간하기로 했으며, 2004년 4월 정기총회와 한라산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계동문회

「동북아시아 우리의 역할」 특강



기계동문회(회장 蔡洵勳)는 지난 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본회 林光洙(林光洙)회장, 高源鎭(高源鎭)회장, 모교 金孝經(金孝經)교수, 趙宣業(趙宣業)명예교수, 李長茂(李長茂)전임학장, 韓民九(韓民九)학장, 李東鎭(李東鎭)학부장, 明泰鎭(明泰鎭)前승원기업 대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玄鳳涉(玄鳳涉)명예연구원, 영남대 李相天(李相天)총장 등을 비롯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蔡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를 열어 가는 길목에서, 눈부시게 변화해 가는 고급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일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영원한 서울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인 蔡회장이 '동북아시아에 우리 나라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高源鎭교문이 건배제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4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삼양간사회 및 기별

간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4월과 8월에 동문회 소식지를 발간하기로 의결했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기로 했다.

AIP 8기

동문 신간·동정 소개

AIP 8기 동기회(회장 郭文衡)는 최근 JW메리어트호텔 연회장에서 전임회장인 金相和(金相和)·(백산 대표)·文熙熙(文熙熙)前한글학회지 회장, 芮相植(芮相植)새마을금고 이사장, 李容秀(李容秀)서울 낮도 사장, 裴相基(裴相基)상지상사 회장, 洪官義(洪官義)前동부그룹 부회장)교문 등을 비롯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金光男(金光男)前코센터 건설본부장)동문의 신간 「건설산업 달라져야 한다(기문당)」와 시인으로 등단(문학마을 2003년 봄호)한 郭희정의 출판이 지 (kwakmoonyeon.pe.kr)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찬을 든 참석자들은 지난 1년 간의 소감과 새해소망에 대한 덕담을 나누며 郭희정, 車田煥(車田煥)·金相和(金相和)·沈甲輔(沈甲輔) LMS 대표)교문, 한성기업 崔熙熙(崔熙熙)사장, 한림 김호준대표, 金明植(金明植)차기 회장이 협찬한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表)

정치·외교학과

신임 회장에 金鉤동문 선임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朴鍾圭)는 지난 1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모교 金鉤(48년卒) 명예교수, 한국언론인포럼 尹銘重(57년卒) 회장, 세종대 南時旭(58년卒) 석좌교수, 인제대 崔東顯(58년卒) 석좌교수, 서울디지털대 宋復(60년卒) 석좌교수, 동아일보 南仲九(64년卒) 평화연구소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李炯炯(64년卒) 회장, 李萬植(66년卒) 교통개발연구원장, 본보 許璠(68년卒) 사무총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산 감사보고, 예산안 심의 의결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鉤(63년卒·국동상금 대표) 동문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許

璠·金萬富(72년卒·삼익악기 감사) 동문, 부회장에 崔丁友(79년卒·모교 외교학과 교수) 동문, 총무에 申旭熙(84년卒·모교 외교학과 교수)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金鉤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친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창회가 튼튼해야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동창회 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건실한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金鉤회장은 지난 1972년 국동상금을 설립, 30여 년간 무역분야에서 활약해왔으며 (사)4월회 부회장, 한국수입협회 이사·운역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운영위원, 한·중문화협회 이사·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정책최고과정

회장 등 새 임원진 선출

해양정책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는 최근 해군해관 영빈관 비학실에서 부부 동반으로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南회장의 인사말과 해양정책최고과정을 개설한 모교 崔龍安교수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南회장을 재선출하고, 수석 부회장에 건일엔지니어링 손일수(37기) 대표, 감사에 김장리법률사무소 徐圭求(17기) 변호사·원일수 산식품 정두영(37기) 대표, 총무에 정용현(17기) 한국방위연구원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2003년 결산 보고 및 승인, 2004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에 이어 南회장은 전임 총무인 지오시스템리서치 김홍선(27기) 대표에게 항운의 영직을 증명했으며, 참석자들은 鄭熙基(27기) 국회의원의 덕담과 해양수산부 현기진(17기) 시기관관의 지난해 12월 발생한 남극기지 조난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영여초합법인 김태환(1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여흥 및 기별 장기자랑대회에서 최익현(2기) 동문 부부가 최우수상, 차순규(37기) 동문 부부가 우수상에 랠했다.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초대 회장에 金奎台동문 추대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는 지난해 12월 8일 아미가호텔 크리스탈룸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칙 제정에 이어 임원 선출을 통해 초대 회장에 金奎台(1기·이원물산 대표) 동문을 선출했으며, 고문에 정경관(17기·중앙이패럴 대표)·박태웅(27기·라노 디자인 아카데미 원장)·허찬(37기·금광하이텍 대표) 동문, 수석부회장에 김충복(17기·SD패션산업연구원 회장) 동문, 감사에 강건일(27기·케이벨 대표)·김명호(27기·서울패션디자인센터 소장)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날 제1회 「서울대 패션경영인 대상」 시상식을 열어 1기 김영주(세명여패럴 사장)·소장중(정호코리아·미니엄 사장)·이진순(GSGM 사장)·이철우(동의실업·mustbe 사장) 동문, 2기 김경민(인스모드 플래너 사장)·박태웅(노라노 디자인 아카데미 원장)·이상일(팩스타 일 타임즈 발행인) 동문, 3기 안병은(SARA-J 사장)·채봉석(태광하이틴 사장)·최병오(형지어패럴 사장) 동문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이어 동창회 창립기념으로 발행한 2003년 12월 5일자 「서울대 패션산업 CEO 신문」 창간호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모임 탐방 - 우리가곡 연구회

30여 동문, 우리열 담긴 가곡 연구

남북한 가곡 동질성 회복에 노력

우리가곡연구회(회장 李鍾淑)는 93년도에 모교 유대 성악과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의 열과 느낌이 담긴 가곡을 찾고 연구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4명의 동문들로 시작해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곡연구회는 그동안 우리 가곡이 대중뿐만 아니라 학문연구에서도 소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져 우리 가곡의 「열」을 만들고 이에 걸맞은 우리의 소리와 표현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메조소프라노 李鍾淑(73년 舊大卒·성결대 교수)회장은 우리가곡연구회가 인위적 연주회 행사만 하는 일반 연구회와는 달리 지속적인 가곡 발표를 겸한 세미나를 주축하며 순수 학문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연구회는 소프라노 朴然熙(74년 舊大卒·모교 강사)·朴美媛(81년 舊大卒·광주대 교수)·姜貞姬(88년 舊大卒·침례신학대 교수) 동문, 테너 金東鉉(85년 舊大卒·서울장신대 겸임교수)·玉庫勳(85년 舊大卒·국민대 교수)·李泰洪(86년 舊大卒·강원



李鍾淑 회장

대 교수) 동문, 바리톤 南義天(78년 舊大卒·전남대 교수)·具熙容(86년 舊大卒·충남산업대 교수)·梁在武(86년 舊大卒·서울예고 교사) 동문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가입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우리 가곡을 연구할 자재와 역량이 있는지를 심사해 가입시키고 있으며 회원 중 85%가 동문이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연구하여 정리했던 가곡 일부를 한국근대 가곡을 CD에 담아 출판했으며 지금까지 여러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가곡의 한국적인 소재와 한국적인 표현양식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李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가곡이 한국적인 장법에 의해 불러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태리 장법으로 불러 방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교 언어학과 李煥復(59년 文理대卒) 명예교수를 초빙해 해외 연구하는 등 우리 가곡의 발음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고.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악보로 남기거나 인터넷 홈페이지(gagok.co.kr/woori)에 자료로 올리며 최근에는 CD 출판 기념 음악회를 새창문화회관에서 열기도 했다.

또 올해에는 남북한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가곡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져서 이질적인 남진 가곡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순수음악이 발전하고 우리의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 특히 동문들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李)



연구성과 모아 출판한 첫 CD음반

영어교육과

기금 1억원 모금키로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柱仙)는 지난 1월 6일 프레스컨호텔 신세계홀에서 모교 대학원생을 비롯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동문간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지원을 위한 장학·연구·연수·봉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목표액인 1억원 달성을 위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2부 여흥시간에는 선주배간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가 열렸으며, 모교 黃達倫(58년卒)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참석자들의哄을 돋우었다.

체육교육과

모교·동창회 지원 당부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金昌奎)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수회관 건배선센터에서 朴吉俊(53년卒)·趙明熙(53년卒)·李明煥(55년卒)·李範祚(목자)(58년卒)고문, 金東奎(65년卒)·李萬熙(69년卒)·鄭熙顯(70년卒) 부회장을 비롯한 동문 및 재학생 1백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4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세련된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장학금 지급 및 동창회 행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채우호씨 배로 및 실시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모교 소식과 동문·여·경사 등을 더욱 신속하게 전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최고산업전략과장

趙淳동문 초청 강연

최고산업전략과장동창회(회장 趙淳)는 지난 1월 12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 및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동문들 모두를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의가 살아있고, 긍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선진화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 동문으로서 이렇게 진실을 장려하여 우리 자녀들이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단한 후 정지대 鄭淳(49년 舊大卒) 석좌교수가 「새해 한국 경제사회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姜)

다. 세계의 안정된 민주주의의 대부분이 내각제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심각한 정치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통령제보다 더 이상 잘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나타났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7대 총선 후가 아니라 총선 전에 각 당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국민에게 하고, 17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그것이 3당이 되면 4당이 되면 합의로 개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인 2008년 선거는 다행히 우리 헌정사에서 보기 드물게 대통령 임기와 국회 임기가 5주인 정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준비기간이 3~4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정치인들이 앞으로 내각제 시대에 걸맞는 국무총리로서 담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한다는 행동양식, 목표 등을 새로 잡는 리오리엔테이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17대 총선 전후는 절단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총선거보다 일차로 참술 등 경제 회복 여부에 관심이 더 있을텐데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무총리를 지내신 식견으로 볼 때 올해의 경제 전망을 지난해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이도 되겠습니까?』

『비관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있다 생각합니다. 연말연초부터 외환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로 출발이 좋지 않은 것이 걱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국제시장으로 변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본시장 그리고 새 기술,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과거 산업화에 성공한 모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시장의 개혁과 적용 속도가 세계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빠른 속도로 이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해는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의 적응력에 대한 결정적 테스트의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통령께서 앞장서시고, 기업과 인원이 힘을 합쳐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고립시키거나 국제적 흐름에서 떨어놓아서 아무 장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박자를 가져서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모으아야 기술도 들어올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자체 기술, 자체 인력의 개발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도 한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동맹들을 비롯한 여량 있는 분들이 전보다 더 많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정점되어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박한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의 원천으로 선진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FTA 문제만 해도 저는 단순히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진통을 겪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자 문제



만 보아도 외국부자를 원한다고 많은 한민도 과거 일제 식민지 경험 때문인지 실제 외국회사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기업을 다 가져가게 해 야만 거부당 먹고 먹거리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석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언으로 우리 남과 북, 7천만 민족이 가장 안전하게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반도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뒤집는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지요. 게다가 북한의 경제는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속

도나 협상하는 입장의 조정 등 차이는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6자 회담 등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간 차원에서 다행스럽게도 남북

대통령제 ‘불안’ 내각에 힘 실어주자 시장개방·인력개발이 경제 살린다

말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큰 경제라고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해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민주화나 산업화에서 상당히 성공한 OECD 국가로서 낙관하게 개방을 하면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도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화제를 나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라크 전쟁으로 동맹지역에 출현한 관심사의 초점이 세계에는 북한 핵문제다. 다시 옮겨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경에서 두 번째로 열릴 6자 회담이 주목받고 있는데, 올해의 6자 회담과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의 선택 여지는 굉장히 좁습니다. 세계의 모든 흐름이 아라크와는 좀 다른 상황에 있으니까요. 지난해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도 패권도 프랑스나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고 국제적인 입장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지요.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이라크 편에 가담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 북한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국가의 기용으로 생각하는 김일성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는 다소 답보 상태인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실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정할 당시로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 이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정착되었는데,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지난 88~89년 아주 극한인 여소이대 회에서 많은 공청회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범국민적인 생각이 수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여국일도 있었고 한 측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일본은 남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북한 지원을 상당히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물론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원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여 교류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 또는 민간 차원에서 협조나 교류는 북한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짚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약력>

▲1934년 서울 출생 ▲경고교 졸업, 모교 법대 입학 ▲美에모리대 철학과 졸업, 예일대 정치학박사 ▲63~68년 미국 예모리대 조교수 ▲69~88년 모교 사범대 정치학과 교수 ▲86년 한국정치학회장, 서울국제포럼 회장 ▲88~90년 국무총리실 장관 ▲90년 대통령 정치담당특보 ▲91~93년駐越남 대사 ▲93~9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94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 ▲94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94~95년 국무총리 ▲96년 15대 국회의원 ▲96~97년 신한국당 대표의원 ▲96년 국제평화회의(IPA) 명예공동의장 ▲98~00년駐미국 대사 ▲현재 통일고문회의의 통일고문,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중앙일보 상임고문,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 한국해바라기 후원회장

—홍자들은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연립에 재선되면 미국의 對北政策 노선이 강경한 쪽으로 선회하여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駐美大使를 지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비관적 한반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책은 그 정도에 있어서나, 문자 그대로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정책의 목표, 즉 끝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지속될 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특수한 조건과 미국으로서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여론, 그리고 당사국들의 힘을 모아서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돋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국들의 힘을 모아서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돋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나라의 對美외교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국내 일부 계층에서 일고 있는 反美정서로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관계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미관계에 있어서 지난 2~3년 동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25를 겪은 세대, 이른바 기성 세대의는 달리 청년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는 국제사회라는 보편성에 입각해서 한 미관계를 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특수성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데 일종의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한국의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나 OECD 회원국으로서 민주화에도 성공한 상당한 입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상리적 부담이 깔려있는 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이런 변화

(11면에 계속)

대전·충남지부 여성지회 吳世和 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도시환경과 위생정책과정 吳元錫 회장

“지역 엘리트의 구심점 역할 할 터”

지난 12월 8일 대전·충남지부 동창회는 여성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吳世和(65년 文理大卒·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장)등론을 선임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을 잠시 방문한 吳회장을 만나 초대 회장으로서 각오와 앞으로의 여성지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여성지회 구성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여러 지역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어 동창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러나 법관, 검찰, 특허청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자들과 의사, 의사 등 전문직 분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직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처음부터 참여한 동문들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회장과 감사 2명, 총무 2명, 그리고 10여 명의 이사들을 선임했으나, 아직 1차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어 부회장 2명을 겸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회장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대전지역에 많은 엘리트 여성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이 이끌어 나갔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부 동창회에 참여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에 앞으로 서로의 발전과 사회에의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성 동문이 되기 위해 아름다운 전수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성 단체 활동에도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대한여성과학실험회를 창립해 회장으로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단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이루고 과학지식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에 있는 주부를 포함한 여성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교육과 인식을 새롭게 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을 통한 과학의 대중화는 소수 과학자들의 감이 있는 연구들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창회 사업을 위한 계획은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창회 임원진들과의 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 동문들이 앞장선다면 전체 동창회 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吳동문은 모교 대학원 유기화학 석사과정, 미네소타대 대학원 화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콜로라도 대학과 연구원, 경제대 화학과 부교수,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결로염색공연구센터장, 충남대 겸임교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

“과정명칭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

지난 12월 16일 도시환경과 위생정책과정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吳元錫(2기 SGS-동성화학공업 회장)등론이 선출됐다. 이에 吳회장을 만나 동창회 운영계획, 동문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은.

「한국프라스틱재활용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환경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됐으며 어떻게 하든 보니 막중한 직분까지 맡게 됐습니다. 능력이 나 서열로 볼 때 제가 회장직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욱이 吳元錫(1기 SGS-산안전실산업 회장)전임 회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뽑아 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동창회 활동은.

「SGS과정이 1995년에 개칭됐지만 동창회는 지난 2000년에 창립했습니다. 현재 2백65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차 가능한 동문은 2백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내세울 만한 사업은 많지 않지만 골프, 등산 등 친목 동호회 모임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 점은.

「6기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과정명칭이 「CEO환경경영포럼」으로 변경돼 그 이후의 동문들과는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회원수가 늘지 않고 모임마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O환경경영포럼이 SGS과정과 명칭만 다를 뿐 성격은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CEO환경경영포럼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현재 2백50여 명으로 추산되며 여전히 잘 하는 SGS 동창회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사업도 많이 바쁘실 텐데.

「동성화학공업이라는 포장소재 전문기업을 30년간 맡아 오다 최근 들어 자녀에게 경영을 맡기고 조연자 역할에 차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라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많지만 어느 때보다 사업 외의 일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현재 6기까지로 이뤄진 동창회 기반을 다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안일함을 잘 쟁기면 CEO환경경영포럼, 환경대학원 동창회와도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정기모임은 연 4회 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자주 모여야 서로 사정도 알고 도움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 1월 16일 임원회의에서 가장 참석인원을 개선해 봤는데, 평균 80명 정도는 참석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吳회장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 한국프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 SGS 2기 총기회장 등을 역임했다.

(南)

(9면에 이어)

에 대한 적응이 아주 부드럽게 되기는 쉽지 않았습다. 게다가 유일초창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인기가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에 우리가 동맹국이었다 해도 그런 세계적인 추세가 나타나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다시 두 나라의 관계를 본다면 거의 2백년만에 가까운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교육은 물론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의 어려움과 적응시기를 넘으면 비교적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갈등 극복」 즉 국민화합을 꼽고 있습니다. 남

북 분단에 이어 동서로 갈린 지역갈등, 여기에 세대간 이념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색채(이)가 우리 경제 원로의 한 분으로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학 가운데 정치이념 등을 많이 가르친 사람이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념화, 극단화로 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념을 고집한다면 나만이 옳다는 생각, 또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이기심은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들로서 비생산적이고 위험을 초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의 나라들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반미감정에 대해 언급했는데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에 의해 핵공격을 받은 전제국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로서의 지혜라고 할까, 오늘날의 미일관계를 이루어냈습니다. 중국 또한 미일관계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대적이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대의 투자국이자 국제시장으로서 미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못지 않은 지혜로운 민족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통일에까지 이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해결책도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1969년 정부가 서울대학교를 종합화하여 관악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교수, 학생 등이 시외에 있는 불산에 무슨 대학을 짓느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협소한 동승동 캠퍼스보다 관악산으로 옮긴 것은 옳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때에부설의 히브루대하이 스크루스안에 건물을 성공적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70년 여름쯤에 제가 이

שראל을 방문하여 히브루대학을 살펴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난 12월 히브루대학을 다시 찾아갔을 때 건물들을 많이 지어 놓아서 너무 대단했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관악캠퍼스를 방문해보니 서울대학교가 더 많이 변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을 준비할 당시 제가 각 등에서 공부 할 때는 수험 학생을 자동적으로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물론 찬반의견이 많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鄭憲泰총장께서 실행에 옮긴 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는 기다리면 이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이라고 말하는데,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동창회는 물론 동문 여러분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를 위해 이처럼 정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진·정리는 안영환 기자)

모교소식

외국 우수인력 겸임교수 초빙 을 2학기부터 강좌 개설기로

모교(총장 鄭雲煥)는 지난 1월 15일 외국 유수의 연구소와 교육기관 및 기업의 우수 인력을 겸임교수로 초빙해 최신 연구성과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강좌를 2학기부터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교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러 상황과 여건 변화를 수용하며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대외적으로 세계 유수 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빙교

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교영어 등 외국어 교과담당 초빙교원 27명 중 21명을 외국인으로 채용했으며, 전공 교과담당 초빙교원 60명 중 외국인을 39명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로 강의를 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현재 모교는 현재 23명인 전임강사급 이상 외국인 교수들을 올해 중 30명정까지 늘려 외국인 교수 영입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환경대학원 원장에

환경조경학과 黃琪源교수 선임



지난 1월 16일자로 환경대학원장에 환경조경학과 黃琪源교수

수(사진)가 선임됐다.

70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75년 환경대학원 도시지역계획과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78년 미하버드대 록펠러대학원에서 조경학·도시설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환경조경학과 학과장과 환경대학원 부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설립 ... 8과7일 설치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茂燮)은 지난 1월 13일 이른바 3월초 식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식물병원(Plant Clinic Center)」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식물의 병을 치료하고 올바른 재배·관리법을 상담할 수 있는 병원에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왕진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식물병원에는 기초진단과, 식물병리과, 전염해충과 등 8과

와 박테리아실, 해충감염치료실 등 7개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진단과 치료는 농생대 교수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담당한다.

이 밖에도 식물병원에서는 순잎혹파리를 비롯한 수목 전염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농약 등 각종 농용 방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각종 희귀식물을 및 곤충 표본 전시실도 설치한다.

법과대학

외국인 교수 3명 첫 임용

법과대학(학장 安京煥)은 지난 12월 4일 국제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법대 최초로 외국인 교수를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초빙된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강 박사와 중국 정법대 리추치안 교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페터 길레르 교수는 올해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에서 각각 영미법, 아시아법, 대륙법 강의를 맡을 계획이다.

강박사는 지난 1987년 미국 콜롬비아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90년 케임브리지대

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제 분쟁지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다. 중국 정법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리교수는 아시아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되며 법대가 추진 중인 아시아법 센터의 자문 역할도 담당한다.

안학장은 "오로지 사법시험만 거나한 한국의 법학교육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함으로써 영어로 국제법을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故 全在奎동문 부친 2억원 출연

鄭총장 "추모학술대회 매년 개최"



한편 鄭총장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고 「全동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기금을 더 보태고 추모 학술대회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雲煥총장

동남아 대학과 교류협정

모교 鄭雲煥총장은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대학들과 학술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대, 말레이시아의 말라야대, 태국의 타마사트대, 베트남의 하노이·호치민 국립대 등 4개국을 대표하는 5개 대학과 체결하는 이번 교류협력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호 학생교류에 있어 등록금을 면제하고, 가족사를 제공하는 등 학생·교수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내과학교실 金孝洙교수팀

세계 첫 심근경색 치료법 개발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金孝洙교수(84년 醫大卒·사진)팀은 최근 李命顯교수(76년 醫大卒)팀과 함께 체내 줄기세포를 약물로 손쉽게 채취한 뒤 이 줄기세포로 중증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는데 세계 처음으로 성공했다.

金교수팀은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심근경색 환자 26명에게 (주)동아제약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생산한 「백혈구 증식인자(G-CSF)」를 주사한 뒤 말

초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채집하여 이 줄기세포를 심근경색 환자의 관동맥에 투여한 결과, 모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전했다.

특히 치료 6개월이 지나 심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실시한 7명의 경우, 심장수축 기능이 크게 좋아졌으며, 괴사 심근부위의 미세혈류가 정상 수준으로 개선됨으로써 조경이나 빠른 수영도 가능했다고 의뢰진은 덧붙였다.

경영대학

ABP 수료자 강연회

경영대학(학장 朴昌錫)은 지난 1월 15일 조선훈호텔 키드룸에서 고급금융과정(Advanced Banking Program) 수료자들을 초청, 2004년 신년인사회 겸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모교 鄭雲煥총장이 「내가 본 한국경제와 대학」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한미은행 金廣洪(기)부행장 등 1백3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교직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모교 鄭雲煥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1천2백80여 만원을 「사랑의 반집」 등 단과구의 1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성금을 모아 왔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혀 피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되는 질환으로 한국 사회가 서구화됨에 따라 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현재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심장혈관계 최고 권위자인 「서클레이션(Circulation)」지에 논문이 실렸으며, 오는 3월 미국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모교 병원에 암센터 개설

항암치료 「원스톱」 서비스 실시



모교 병원(원장 朴容熙)은 지난 1월 14일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닐지 않고도 예약과 수납, 처방, 항암주사 등의 진료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암센터(소장 許大

韓·내과학교실 교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아별관 2·3층에 5백평 규모로 마련된 이 센터는 외래진료실, 채

혈실, 초음파 및 X-RAY 검사실, 주사실, 간호사실, 상담실과 원무데스크, 무인처방전 시스템 등을 갖췄다. 또 하루에 약 5백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1백50여 명이 항암주사를 투여 받을 수 있으며 항암치료의

단일 공간으로는 면적과 진료건수에 있어서 국내 최대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은 담당의사와의 진료실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고 각종 검사와 상담에 투여를 위해 병원 곳곳을 찾아다니던 불편함이 없어져 앞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한결 덜어주게 된다.

한편 암센터는 조만간 소수술실과 각종 검사실, 재확진치료를 갖춘 유방센터를 신설하고 암 치료와 관련하여 내·외과 외래 통합진료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외래암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許소장은 「암센터 개설로 인해 앞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가 모든 병원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李)



모교 응용화학부 **崔 雄명**에 교수

2남1녀·사위 모두 학자·공학도로 ‘맹활약’

“부지런히 대비하고, 근검 절약하며 삽니다”

과거에는 공대라고 하면 최고의 대학이자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또 졸업생들은 큰 걱정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공계 기회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이공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도 공학도로서 자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 가족이 있다.

崔 雄(48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명예교수)동문의 2남1녀 중 장남 **崔 勳**(67년 工大卒·대우건설 부사장)동문은 토목공학과 출신이고, 차남 **崔 學**(71년 工大卒·주한 영국대사관 상무관)동문은 부친의 뒤를 이어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또 문리대 출신인 장녀 **崔 璇**(74년 文理大卒·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동문과 사위 **李正復**(67년 文理大卒·모교 정치학과 교수)동문 내외는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합정남도 합동에서 태어난 **崔 雄**동문은 일제강점기 시절, 흥남 비료공장에서 기술자로 성공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했으나 해방 후 모교에 몸담으며 평생동안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데 앞장섰고 행복을 느껴왔다.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며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거나 공부만 하는 전형적인 학자 타입이라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작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부지런히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근검 절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별로 해준 것은 없으나 말보다는 이러한 당부들을 몸소 보여



뒷줄 좌로부터 **崔 勳**동문, 두 명 건너 **崔 璇·李正復**동문, 앞줄 가운데 **崔 雄**동문. 왼편 **崔 學**동문.

주려고 노력했다」며 덕분에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거리는 없지만 수학 실력이 뛰어났던 **崔**동문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집에서 세 아이들을 앉혀 놓고 직접 수학을 가르쳤다. 문재를 못 풀면 호되게 야단치거나 얼굴 붉히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 가족들과 옛 시절을 회상할 때면 당시 수학 선생으로 분했던 **崔 雄**동문이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崔 雄동문과는 달리 장남 **崔 勳**동문은 공부보다는 취미생활을 즐기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공학과 때부터 시작한 바둑실력은 「제1회 대학생 바둑대회」 국가대표, 경기도동맹회 기

우회 회장 등을 맡을 정도로 프로급 수준을 자랑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뒷전이고 바둑에만 심취해 있던 장남을 보다 못한 **崔 雄**동문은 바둑판을 도끼로 쪼개거나 바둑판과 동그라미가 그려진 노트들을 자주 태워버려야 했다고 한다.

69년부터 35년간 건설부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崔 勳**동문은 그 중 30년을 포바 해외에서 생활했다. 3백40km에 이르는 보츠와나 도로 준공, 라오스 댐 건설, 이란 철도공사 등 그는 아무 것도 없는 사막과 황무지 그리고 밀림한 가운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왔다.

어릴 적부터 음악과 미술에 능해 재주꾼으로 불리웠던 차남 **崔 學**동문은 친구 관계도 두터워 때로는 엉뚱하다 싶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가족들을 당혹스럽

장남

崔 勳(67년 工大卒)

대우건설 부사장

차남

崔 學(71년 工大卒)

주한 영국대사관 상무관

장녀

崔 璇(74년 文理大卒)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사위

李正復(67년 文理大卒)

모교 정치학과 교수

게 하기도 했다. 또 어린 시절 꾸중을 들을 때 형 옆에 서 있는 바람에 따로 혼나는 일이 별로 없어 다른 형제들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崔 學**동문은 GM 수석연구원, 삼성 이사, 벤처회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investment officer로 활동하고 있다.

독어독문학을 전공한 장녀 **崔 璇**동문은 모교에서 대학잡지 「한연」 편집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자의 꿈을 키워왔으나 독일 베를린에서 돌연 노어노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고려대에서 노어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崔 雄동문은 사위 **李正復**동문을 소개하면서 「같은 캠퍼스에서 근무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인지 조용한 성격과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면이 나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밖에 **李**동문은 그동안 모교 대학신문 주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崔동문은 「우리 가족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한 분야를 열심히 좋아하고 파고들어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表)

건강을 지킵시다

목 통증, 스트레스·나쁜 자세 원인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겼다 하면 뒷목이 뻣뻣해져요』 「긴장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뒷목이 빠근하고 어깨가 무거워요」 「교통사고 난 후론 늘 뒷목이 무겁고 등까지 결리면서 몸이 쪼루뚫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종일 동일한 자세로 신호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운전하는 사람부터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대학입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는 수험생, 목악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의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뒷목이 빠근하고 목이 뻣뻣한 증상이다.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 디스크나 고혈압 또는 중풍 등의 질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 CT 또는 MRI 촬영을 해보지만 별다른 이상증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통뻣뻣 증후군」은 목 주위의 근육이 뭉쳐서 나타내는 인종의 근막류증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뒤통뻣뻣 증후군」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불합리한 자세가 더해짐으로써 발병되기 쉽다. 심신의 피로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거나,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업무 또는 독서를 했다가 나 순간적으로 목을 잘못 돌렸



陳善斗(7기 HPM)
진선두한의원 원장

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 디스크가 원인도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목을 구부리거나 뒤쪽으로 젖힐 때, 복과 어깨 쪽으로 몸중이 내려감을 느낄 수 있으며 증세가 심화되면 목 주위의 통증은 소멸되는 반면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뒤통뻣뻣 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한감증이라든가 질병명으로 표현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 목주위의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며 등쪽으로 답이 든 것처럼 목을 돌리기가 힘이 든다. 이러한 「뒤통뻣뻣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운과 혈액순환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답을 제거하고 火氣를 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 치료는 정확한 진찰과 상담에 근거해 침구요법을 비롯해 부항치료, 한방물리요법, 약물요법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연락처 : 372-6521)

나를 건강케

조깅·등산 하루도 빠지 않아

白樂晚(51년 麗大卒)인제학원 이사장·본희 고문

인생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필자 역시 대부분의 한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40대 중반까지는 건강을 소홀히 하고 술과 담배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북한산 등반을 가게 됐는데 초입부터 숨이 차는 등 몸이 엉망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그래서 단호히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서울, 부산, 김해를 드나들며 인제대의 5개의 백병원을 경영하는데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필자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결은 「少食」, 「多動」, 「禁煙」, 「節酒」와 매사에 편한 마음을 갖자는 것으로 의외로 간단하다. 그 중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多動, 즉 운동은 하면 할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운동의 효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첫째, 운동은 생명력의 근원인 근육을 키워준다. 둘째, 생명 현상에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셋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넷째, 파임 칼보리를 소모하여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다섯째,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 준다. 최근에는 운동이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그리고 암의 발생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운동이 다 좋겠지만 특히 등산이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싶다. 등산과 조깅은 큰 기술도 필요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어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나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최고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지난 30여 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조깅과 등산을 했다. 심지어 외국에 출장 나갈 때도 꼭 운동화는 챙겨가서 운동을 계속 했다. 주중에는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하기에 새벽 일찍 조깅을 한다. 서울에서는 삼청공원, 부산에서는 금정산 중턱의 운동장에서 5시 반쯤에 나간다. 그리고 2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쏘 후 마무리하지 않고 2~3km 가량 달린다. 그 후 마무리 운동을 하면 1시 정도 걸리며 집으로 돌아와 출근을 준비한다.

북한산 등산 또한 지난 30여 년간 매주 일요일 거르지 않았다. 9시경 북한산 매표소에서 출발해 보국문을 거쳐 太古寺에 이르면 계곡에서 등반을 한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얇은 겹옷과 등과 머리에 각 두 번씩 반박해 총 여덟 번 등복을 한 후 앞에 찬 옷을 갈아입는다. 그 후 도시락을 먹고, 잠시 눈도 불이고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한다. 오후 2시쯤 북한산성 쪽으로 올라간 뒤 내려오는 길에 守成峽에 들러 약수를 담고, 하산 중에 또 한번의 등복을 하고 내려오면 오후 4~5시가 된다.

운동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섭취나 휴식과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문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리를 박고 나가 운동을 시작해 건강·365일을 지키 나가길 바란다.



동문기자의 취재수첩

알코올 중독 심각한 에스키모 취재기



권성호(89년 社會大學)
KBS 문화부 기자

베로우(Barrow) 공항의 트랩을 내려 서자 찬 기기가 마구 파고든다. 2003년 연말, 알래스카 취재 첫날 새벽 북미 대륙의 북쪽 땅끝마을 베로우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백인들 틈에서 한국인 비슷한 얼굴들이 두툼한 고어텍스 파카 사이로 이뻐만 하얗게 드러난 채 웃고 있다. 에스키모들이었다. 베로우는 에스키모 도시이다. 4천3백명의 주민 가운데 60%가 에스키모로 알래스카에서 유일한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에스키모의 생활은 책에서 보면 전혀는 달랐다. 집마다 위성 텔레비전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개설배대선 스노우 모뎀이 공을 울리며 달리고 있었다.

북극에 근처 유전에서 나온 이익의 일부를 알래스카 주정부와 기업으로 관리하면서 주민 1인당 1년에 1천2백~1천3백달러씩 그날 나눠주는 데다 에스키모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정부와 특혜가 집중돼 배당 이익이 많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했다.

취재도중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술을 통제하고 있다는 말에 에스키모의 알코올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시청과 접촉해보니 알코올문제를 외국인과는 달리 텔레비전 카메라가 취재하는 것은 곤란하며 고개를 가로챘다. 「한국도 알코올문제가 심각해 베로우의 독특한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반말로 설득한 끝에 간신히 알코올 배급소의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알코올 배급소는 동네 가운데 있었다. 주민들의 술 주문을 받아 영커리지와 패어뱅크스 같은 대도시의 술 도매상에 서 인골 구매 한 뒤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곳이었다. 만 21세 이상 성인으로 알코올허가증이 있어야 술을 주문할 수 있고 알코올의 양도 한 달에 딱 두 리터, 위스키 몇 리터 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주민들이 찾아와 대금을 치르고는 주문했던 술을 차에 싣고 있었다. 한 주

“만 21세 이상 성인으로 알코올 허가증 있어야 술 주문 가능”

민에게 마이크를 들어줬다. 「이런 제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싫으면 술을 끊거나 불법으로 수입된 술을 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을 만나 Dry town, 곧 술집 없는 동네의 연유를 물어봤다. 술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가 워낙 많아 골치를 앓던 중 주민투표를 통해 술집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해마다 주민투표로 이 정책의 계속 여부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초기에는 술집은 물론 술의 반입조차 금지하는 극

단적인 금주안을 밀어 부쳤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사에서 술이 반입되고 위스키 1병이 시세의 10배인 1백달러 이상에 밀려져 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 결국 현재와 같은 「알코올량 통제」라는 중간선으로 수렴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은 계속 됐다. 「정책의 균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투표를 해보니 한 해는 Dry town, 다음해는 Wet town, 그 다음엔 Dry town하는 식으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반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허용량을 너무 줄이면 다음해 주민투표 때 술집 전면폐쇄 주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에스키모들이 모여 술을 마신다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촬영은 절대불가였다. 그들의 체면, 위신과 직결된 문제라 무리해서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포기하고 돌아 오는 길에 다른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물러나 오는 에스키모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차 안에서 카메라를 들어대는 순간 이들은 비틀거리며 차창으로 불러들여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았다. 그들의 몸에서 술 냄새가 짙게 풍겼다.

백인들은 에스키모들의 음주습관을 「굉장히 늦게까지 마신다」고 표현했다. 이전에는 이런 폭음 때문에 사망사고, 폭행사건, 가정 폭력이 술을 이었다고 한다. 드라이타운은 정책 덕분에 나아졌

다고는 하지만 알코올 배급소에서 각자 술을 사가서는 한자리에 모여 바다를 볼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에스키모 사회에 알코올이 등장한 것은 백인들인 전 백인들이 나타나 위스키와 포피를 맞바꾸면 서부터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었다.

에스키모의 정체성 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전문대학에서 에스키모어(이누이트어)를 가르친다는 60대의 여교수는 「60대 이상 노인들만 에스키모어를 할 수 있고 40대는 겨우 알아들을 정도이며 그 아래는 초삼말을 모른다. 젊은 층은 온통 텔레비전에 빠져 산다」고 말했다. 갑수족 에스키모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언어마저 잊어버리고 있다는 개탄이었다.

자연이 준 대지 위에 그들 식대로 살면 이들이 물질적 풍요의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 이런 시작 자체가 때부터 제3자의 오만한 운정주의는 아닌지... 베로우에서의 3박4일은 물론 알래스카에서 보낸 열 몇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거리였다.



鄭耕民(88년 社會大學)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선 정부를 빼놓고선 경제를 말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기적」을 이끈 데는 사망감으로 무장한 젊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의 역할이나 위상도 크게 변했다. 그 속도가 아까워 빠른 경제기자는 10년 전 필자조차 적응이 안 될 정도다. 정부 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 파스도가 있다.

옛 재무부의 경제기획원을 합친 막강 재정경제원은 출범하면 96년 불이었다. 압호론에 가까운 보도자료와 서류하다 도저히 해독이 안 돼 담당 과장의 반을 찾았다. 필기 열쇠를 문서지침을 보면 A과장은 기사가 들어서자 황급히 보고

있던 문서를 뒤집어 놓았다. A과장의 놀라는 모습으로 보아 그 문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돌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저 문서를 볼 수 있을까. 사회부 기자라면 처면 돌리고 문서를 들고 떠나 도망가 버려. 그러나 경제부에서 그런 시도를 취해한다면 「사이비」 기자로 찍혀서 기사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한참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보도자료 예기를 하는데 언뜻언뜻 보이는 문서의 뒷면으로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나 뒤집어 놓은 문서의 뒷면으로 보일 듯 말 듯 한 글자를 해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 현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어디선가 A과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과장은 전화 통을 붙잡고 한참 동안 상대방과 일체를 하고 있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A과장의 손에 있는 문서를 훑어내려 버렸다. 「眼光이 紙背를 徹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글씨를 거꾸로 읽는다는 게 그렇게 현기증 나는 일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문제의 서류는 재정원이 향후 두 달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리한 로드맵이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된 부총

리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이었다. 내용 중에는 업계에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사안도 포함돼 있었다. 「저게 재정원이 계획한 대로 다 심전에 옮겨질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반신반의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할 무렵 A과장이 전화를 끊었다. 혹시 외문 내용을 잊어버

“8년 전과 달리 공무원 말 듣고 기사 쓰면 백발백중 오보”

릴까봐 갑자기 회사에서 찾는다고 둘러댄 뒤 황급히 A과장의 방을 나왔다.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손바닥에 내용을 옮겨 적었다.

이후 두 달 동안 필자는 느긋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일을 만하면 한 건씩 곧 밥 먹듯이 그때 본 내용을 쓰면 그대로 통용이 됐다. 놀랍게도 다섯 건에 이르러는 정책이 당시 재정원이 계획한 내용

그대로 그 시기에 심전에 옮겨졌다. 과장급재정경제원 공무원 한 명에게서 얻는 정보가 일제 최고경쟁자 열 명을 거쳐서 얻는 것보다 많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었다.

8년이 흐른 올해 초, 금융단을 출범하게 된 필자는 연초부터 LG카드 자금 위기 때문에 연일 자정 넘어서까지 기사를 써야 했다. 협상이 얼얼락락 치라 해 기사 방향을 수시로 바뀌어 했기 때문이다.

8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점은 공무원의 말을 끝이론대로 믿고 기사를 썼다. 한 백발백중 오보를 낸다는 사실이었다. 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 LG카드를 인수해갈 것이라는 얘기를 흘렸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기사를 썼던 수많은 신문과 방송은 결과적으로 모조리 오보를 냈다.

재정부와 금융감독이 아무리 은행장들을 「검박」해도 공무원들의 말은 믿고 안 먹었다. 심지어 金振約부총리와 李晶巖금감위원장까지 나서서 「은행들이 자기 똥 쟁기이래만 금급해선 안 된다」며 모조리적으로 압박을 넣었지만 은행장들은 꿈쩍도 안 했다.

이런 일 합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의 폐해와 그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상거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일찍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곡물 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빈발하자 법률로써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엄벌로 다스렸던 기록이 있다고 한다. 로마 제국 또한 B.C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 A.D 483년 제노기법에서 식량이나 일용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가격협정 등에 대해 벌금이나 처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독과점 규제의 역사는 1890년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 1923년에 「경제력남용방지법」이 제정됐고 1950년대까지는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제국에서 독점규제법이 제정·시행되어 왔다. 이전의 독과점 규제가 매점매석, 담합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폐해, 비도덕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셔먼법 이후의 독점규제법은 폐해 규제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시장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조직 원리, 국가경제의 조직 원리로서 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2차 오일쇼크로 도입

우리 나라는 비교적 늦은 출발을 보인다.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산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및 6·25 전쟁의 폐해를 딛고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위 선전적 산업화는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됐으나, 한편으로는 산업간 불균형의 확대와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등 폐해를 초래했다.

공정거래법의 도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三粉事件, 코로나 승용차 사건 등 독과점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논의돼 왔으나, 업계의 반대와 압축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소간 독과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시기상조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하게 되자 기존의 직접적 물가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물가불안의 근원적 해결과 경제효율의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아울러 당시 10·26사태라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이 아닌 민간 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해져 1980년 12월 31일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됐다. 1981년 4월 1일 동법이 시행되면서 4월 3일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됐다. 이로써 우리 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에도 경제생활의 변화에 대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4년 하도급법이 제정됐고,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을 통해 경제력집중억제책의 기본틀이 형성됐다. 경제력집중억제책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심화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개정시 지주회사 금지,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편사의 의결권제한제도도 도입됐고, 이후 1990년대 들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1993년 채무보증제한제도도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세계화시대」를 맞아 글로벌센터

자유경쟁 보장하는 시장경제시스템 파수꾼

「세계화」에 부합토록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

글: 朴正元(85년 法大卒)서기관

드에 부합하도록 시장경제에 적절하게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강화됐다. 1994년 소속부처인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원·부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97년 경제규제개혁의 총괄기능을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이관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독과점 품목의 시장구조 개선사업도 크게 강화했다.

IMF 위기로 위상 높아져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질서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 무렵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정책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9년 표시광고법의 제정으로 중요정보공개제도 및 광고심중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 정보정착이 체계화됐고, 산업자원부로부터 방문판매·할부거래

법 업무를 이관 받고 전자거래보호법을 발족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 업무는 그 영역과 질에 있어서 한층 성숙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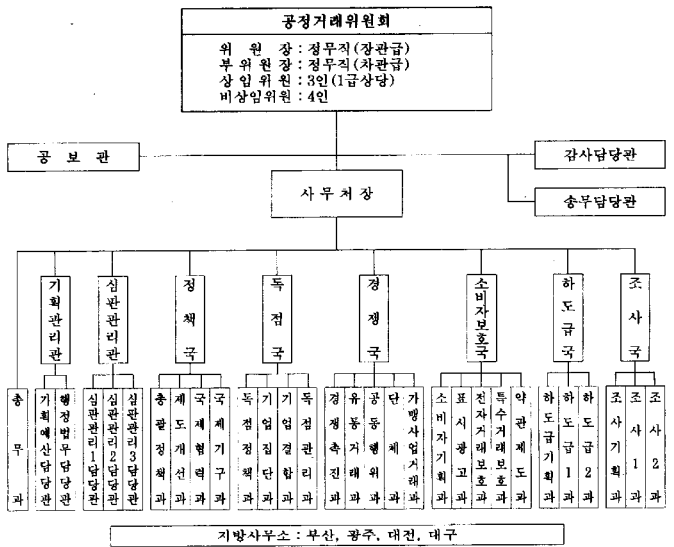
이러한 발전을 거쳐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회 준사법기관—재판과 유사한 심결을 한다는 의미—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 및 4인의 비상임위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 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1급 공무원인 사무차장 2개, 기획관 1관, 심판관리관 2개 관리관,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조사국 등 6개국과 4개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전, 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백16명이다.

소비자 주권확립에 힘써

공정위의 기능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경쟁촉진, 소비

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적 집중 억제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일괄금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먼저 경쟁촉진이란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하고 진입장벽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이다. 전통적 의미의 독과점 규제로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파데토적(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시장참여자가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에는 가격 및 생산량을 독점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파데토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을 완전경쟁에 가까운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의 운용, 카르텔일탈정리법에 의한 경쟁 제한적 규제의 철폐, 각종 정부청장 수입이나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경쟁주장(competition advocacy) 등을 내용으로 한다.

소비자주권 확립은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약관의 시장, 표준약관의 보급 등을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방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사정,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정보공개제도, 광고실정제 등의 운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운용을 내용으로 한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는 주로 대기업에 하도급관계 등으로 종속적인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종업체 또는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중소 하도급건설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주문에 사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더라도 거래유지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용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쟁점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규모 소매점에 있어서의 독점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집행하여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임점·신입업체, 가맹점에 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른바 재벌의 선단시점경제력의 문제점을 시정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재벌이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력 배치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원적으로 주요기업의 법적 형태인 일변적인 주식회사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기 국회, 내각, 수상 또는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기법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에 의해 작동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나라 재벌의 경우를 보면 그룹총수가 4% 남짓 하는 실제현황 지분으로 대기업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공영사 지분을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등 법적 견제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대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소유구조 왜곡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경제부문에 '경쟁'이 핵심원리로 작동되는 진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글로벌·디지털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쟁환경에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의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4백여 명 중 10% 동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양 모두 두드러진다. 약 4백 명이 조금 넘는 전체 인원 중에서 10%가 넘는 50여 명이 활약하고 있다. 우선 합의체의결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동문이다.

홍철수위원장(장관급)은 경제학과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활동하는 지성의 전범으로 신망을 받았고 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면서 뛰어난 행정능력까지 검증 받은 바 있다. 작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임하여 정부·경제·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 참여기업의 대기업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였고 소신과 합리성을 슬기롭게 조화하여 공정위를 이끌고 있다.

홍철수부위원장(차관급)은 우리 나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핵심부서에 근무하면서 다져진 컴퓨터처리, 빠른 조 직화한 업무처리능력에 비상한 균형감각으로 공정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를 떠나서는 의외로 소탈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일꾼이다.

徐東源상임위원은 모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모교 법대를 졸업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공정의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공정 의 최고의사결정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산사람관에 비유될 수 있는 국장은 5명의 동문이 포진하고 있다. 대국회업무·예산업무와 법령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관리관에 이경희(동문)가 자리 잡고 있다. 김희정(동문)이 기획관리관으로 참모인 신장이 두명이다.

공정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국재업무를 다루는 정책국은 李炳周국장이 이끌고 있다. 일단 단언이 서면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스타일로, 따르는 부하직원이 많다. 제법문제와 독과점시장 및 기업결합을 다루는 독점국에는 李東煥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뽑은 바람직한 공정한상의 수상자로 시인한 업무처리와 인간미로 상사로 모시고 싶어 하는 부하직원이 많다.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불공정약관 심사, 전자거래보호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책임지는 소비자보호국은 孫碩玉국장이 이끈다. 유능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리더십 있게 부서를 지휘하면서 국 내부와 외부로부터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다음 과장급에는 7명이 있다.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李海濤과장, 양자간 대외관계를 다루는 국제협력과장에 金載中과장,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과장에 李榮善과장, 독과점정책을 총괄하는 독점정책과장에 金學政과장,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소비자기획과장에 李秀求과장, 불공정약관규제를 담당하는 약관제도과장에 宋尙賢과장, 광주지방법사

소장에 鄭德順과장이 분직하고 있다.

그 외에 裴水洙지사를 비롯한 5명의 동문이 서기관으로 과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25명의 동문이 사무관으로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고 2명의 동문이 주사 또는 주사보로 실무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경제검찰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분발하라는 질책 속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며 동문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를 뒷받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문들은 앞으로 시장경제의 과수원 역할을 다하고 21세기 우리 경제발전의 꿈을 꽃피울 터전을 가꾸는데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문현황〉

이름	출생년도	직 역
姜哲主	68년	상대 경제관
趙學周	72년	상대 경제관
徐東源	74년	공대 전자공학·76년 법대 법학
金範哲	78년	사회대 신문학
李南龍	79년	사회대 경제학
李炳周	76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78년	사회대 경제학
金實玉	75년	상대 경영학
朱海濤	77년	사회대 경제학
李榮善	78년	사회대 정치학
南光洪	81년	행정대학원
李海濤	88년	법대 사법학
金載中	85년	사회대 무역학
李榮善	84년	경원대 경영학
金學政	80년	법대 법학
李秀求	80년	사회대 경제학
宋尙賢	87년	법대 사법학
徐東源	80년	법대 법학
金載中	83년	법대 법학
金範哲	89년	사회대 경제학
孫碩玉	85년	사회대 경제학
裴永泰	88년	인문대 국사학
金範哲	88년	법대 사법학
朴正元	85년	법대 공법학
金範哲	90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88년	법대 공법학
朴在奎	86년	사회대 사회복지학
李幸三	93년	사회대 경제학
成成德	90년	법대 사법학
申曉浩	92년	사회대 경제학
金範哲	89년	경원대 경영학
金俊夏	88년	사회대 경제학
安東勳	91년	인문대 국사학
吳東旭	97년	인문대 언어학
李順美	91년	사대 생물교육
吳世榮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尹守鉉	89년	사회대 경제학
朴鍾德	95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正基	95년	경원대 경영학
朴世熙	97년	인문대 동양사학
金範哲	99년	사회대 경제학
印傳錄	94년	농생대 농경제학
金成昨	98년	경원대 경영학
李煥主	99년	사회대 경제학
金學政	96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文植	01년	사회대 정치학
徐煥采	93년	농생대 산림자원학
金煥守	93년	사회대 지리학
宋政勳	89년	사회대 경제학
金惠卿	93년	생물과학대 소비자과학
朴洪珍	93년	법대 공법학
柳奎昌	92년	법대 사법학
朴弘起	93년	경원대 경영학
金萬煥	83년	사회대 경제학
黃源赫	92년	사회대 경제학
申東烈	96년	사회대 정치학
이름	출생년도	직 역
姜哲主	68년	상대 경제관
趙學周	72년	상대 경제관
徐東源	74년	공대 전자공학·76년 법대 법학
金範哲	78년	사회대 신문학
李南龍	79년	사회대 경제학
李炳周	76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78년	사회대 경제학
金實玉	75년	상대 경영학
朱海濤	77년	사회대 경제학
李榮善	78년	사회대 정치학
南光洪	81년	행정대학원
李海濤	88년	법대 사법학
金載中	85년	사회대 무역학
李榮善	84년	경원대 경영학
金學政	80년	법대 법학
李秀求	80년	사회대 경제학
宋尙賢	87년	법대 사법학
徐東源	80년	법대 법학
金載中	83년	법대 법학
金範哲	89년	사회대 경제학
孫碩玉	85년	사회대 경제학
裴永泰	88년	인문대 국사학
金範哲	88년	법대 사법학
朴正元	85년	법대 공법학
金範哲	90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88년	법대 공법학
朴在奎	86년	사회대 사회복지학
李幸三	93년	사회대 경제학
成成德	90년	법대 사법학
申曉浩	92년	사회대 경제학
金範哲	89년	경원대 경영학
金俊夏	88년	사회대 경제학
安東勳	91년	인문대 국사학
吳東旭	97년	인문대 언어학
李順美	91년	사대 생물교육
吳世榮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尹守鉉	89년	사회대 경제학
朴鍾德	95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正基	95년	경원대 경영학
朴世熙	97년	인문대 동양사학
金範哲	99년	사회대 경제학
印傳錄	94년	농생대 농경제학
金成昨	98년	경원대 경영학
李煥主	99년	사회대 경제학
金學政	96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文植	01년	사회대 정치학
徐煥采	93년	농생대 산림자원학
金煥守	93년	사회대 지리학
宋政勳	89년	사회대 경제학
金惠卿	93년	생물과학대 소비자과학
朴洪珍	93년	법대 공법학
柳奎昌	92년	법대 사법학
朴弘起	93년	경원대 경영학
金萬煥	83년	사회대 경제학
黃源赫	92년	사회대 경제학
申東烈	96년	사회대 정치학
이름	출생년도	직 역
姜哲主	68년	상대 경제관
趙學周	72년	상대 경제관
徐東源	74년	공대 전자공학·76년 법대 법학
金範哲	78년	사회대 신문학
李南龍	79년	사회대 경제학
李炳周	76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78년	사회대 경제학
金實玉	75년	상대 경영학
朱海濤	77년	사회대 경제학
李榮善	78년	사회대 정치학
南光洪	81년	행정대학원
李海濤	88년	법대 사법학
金載中	85년	사회대 무역학
李榮善	84년	경원대 경영학
金學政	80년	법대 법학
李秀求	80년	사회대 경제학
宋尙賢	87년	법대 사법학
徐東源	80년	법대 법학
金載中	83년	법대 법학
金範哲	89년	사회대 경제학
孫碩玉	85년	사회대 경제학
裴永泰	88년	인문대 국사학
金範哲	88년	법대 사법학
朴正元	85년	법대 공법학
金範哲	90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88년	법대 공법학
朴在奎	86년	사회대 사회복지학
李幸三	93년	사회대 경제학
成成德	90년	법대 사법학
申曉浩	92년	사회대 경제학
金範哲	89년	경원대 경영학
金俊夏	88년	사회대 경제학
安東勳	91년	인문대 국사학
吳東旭	97년	인문대 언어학
李順美	91년	사대 생물교육
吳世榮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尹守鉉	89년	사회대 경제학
朴鍾德	95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正基	95년	경원대 경영학
朴世熙	97년	인문대 동양사학
金範哲	99년	사회대 경제학
印傳錄	94년	농생대 농경제학
金成昨	98년	경원대 경영학
李煥主	99년	사회대 경제학
金學政	96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文植	01년	사회대 정치학
徐煥采	93년	농생대 산림자원학
金煥守	93년	사회대 지리학
宋政勳	89년	사회대 경제학
金惠卿	93년	생물과학대 소비자과학
朴洪珍	93년	법대 공법학
柳奎昌	92년	법대 사법학
朴弘起	93년	경원대 경영학
金萬煥	83년	사회대 경제학
黃源赫	92년	사회대 경제학
申東烈	96년	사회대 정치학
이름	출생년도	직 역
姜哲主	68년	상대 경제관
趙學周	72년	상대 경제관
徐東源	74년	공대 전자공학·76년 법대 법학
金範哲	78년	사회대 신문학
李南龍	79년	사회대 경제학
李炳周	76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78년	사회대 경제학
金實玉	75년	상대 경영학
朱海濤	77년	사회대 경제학
李榮善	78년	사회대 정치학
南光洪	81년	행정대학원
李海濤	88년	법대 사법학
金載中	85년	사회대 무역학
李榮善	84년	경원대 경영학
金學政	80년	법대 법학
李秀求	80년	사회대 경제학
宋尙賢	87년	법대 사법학
徐東源	80년	법대 법학
金載中	83년	법대 법학
金範哲	89년	사회대 경제학
孫碩玉	85년	사회대 경제학
裴永泰	88년	인문대 국사학
金範哲	88년	법대 사법학
朴正元	85년	법대 공법학
金範哲	90년	경원대 경영학
李東煥	88년	법대 공법학
朴在奎	86년	사회대 사회복지학
李幸三	93년	사회대 경제학
成成德	90년	법대 사법학
申曉浩	92년	사회대 경제학
金範哲	89년	경원대 경영학
金俊夏	88년	사회대 경제학
安東勳	91년	인문대 국사학
吳東旭	97년	인문대 언어학
李順美	91년	사대 생물교육
吳世榮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尹守鉉	89년	사회대 경제학
朴鍾德	95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正基	95년	경원대 경영학
朴世熙	97년	인문대 동양사학
金範哲	99년	사회대 경제학
印傳錄	94년	농생대 농경제학
金成昨	98년	경원대 경영학
李煥主	99년	사회대 경제학
金學政	96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金文植	01년	사회대 정치학
徐煥采	93년	농생대 산림자원학
金煥守	93년	사회대 지리학
宋政勳	89년	사회대 경제학
金惠卿	93년	생물과학대 소비자과학
朴洪珍	93년	법대 공법학
柳奎昌	92년	법대 사법학
朴弘起	93년	경원대 경영학
金萬煥	83년	사회대 경제학
黃源赫	92년	사회대 경제학
申東烈	96년	사회대 정치학

*현황이 파악된 동문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모교 사랑 실천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 2003년 11월 20일~2003년 12월 11일 · 일반: 2003년 11월 18일~2003년 12월 15일〉

회장단

▲부회장 蔡命仁=100만원
▲부회장 郭承燾=100만원

상임이사

▲崔永赫 문리대동창회장=20만원
▲韓炳仁 물대동창회장=20만원
▲朴英澈 CHCN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강만식(80년 工大卒)=20만원
▲김석준(11기 AIP)=20만원
▲김 정(65년 農大卒)=20만원
▲김정일(76년 農大卒)=20만원
▲김학민(55기 ACAD)=20만원
▲김형만(96년 工大卒)=20만원
▲나정웅(63년 工大卒)=20만원
▲박근제(92년 師大卒)=20만원
▲박정도(68년 農大卒)=20만원
▲박종택(85년 法大卒)=20만원
▲신현석(60년 工大卒)=20만원
▲양준식(89년 農大卒)=20만원
▲양창근(80년 聯大卒)=20만원
▲오정민(97년 工大卒)=20만원
▲원문순(70년 師大卒)=20만원
▲윤수경(79년 醫大卒)=50만원
▲원재재(63년 文理大卒)=50만원
▲이성태(77년 工大卒)=20만원
▲이수현(94년 工大卒)=20만원
▲이윤하(85년 農大卒)=20만원
▲이종석(69년 醫大卒)=20만원
▲이훈우(80년 音大卒)=20만원
▲임현동(88년 工大卒)=20만원
▲정지현(85년 農大卒)=20만원
▲정용진(62년 醫大卒)=50만원
▲정태우(78년 工大卒)=20만원
▲조관호(78년 自然大卒)=20만원
▲조운상(91년 聯大卒)=20만원
▲지규배(71년 農大卒)=20만원
▲최성희(84년 音大卒)=20만원
▲최재홍(20기 AIP)=20만원
▲최희은(99년 環大院卒)=20만원
▲한영민(90년 工大卒)=20만원
▲한봉진(92년 醫大卒)=20만원
▲허현철(88년 工大卒)=20만원
▲홍광성(27기 AIP)=20만원
▲홍승호(58년 文理大卒)=20만원

이사

◇간호대학

▲김금순 ▲서문자 ▲신은숙
▲엄미란 ▲이은숙 ▲이정자
▲정병석 ▲하양숙

◇경영대학

▲김석기 ▲김태오 ▲임태희

◇공과대학

▲고영길 ▲금동화 ▲김도훈
▲김병태 ▲김성근 ▲김영남

▲김재홍 ▲김종홍 ▲김재현
▲박식기 ▲박우규 ▲박찬민
▲변정근 ▲상기성 ▲상기봉
▲이시은 ▲양정숙 ▲양현숙
▲유병환 ▲유인영 ▲유홍렬
▲윤석규 ▲윤신박 ▲유창열
▲이 권 ▲이기창 ▲이대민
▲이동선 ▲이변우 ▲이병휘
▲이석규 ▲이시우 ▲이원규
▲이원도 ▲이정국 ▲이배신
▲이호일 ▲정준호 ▲정경진
▲정일도 ▲정진화 ▲정형수
▲정호식 ▲최준웅 ▲최인철
▲한성준 ▲허영석 ▲홍성복
▲황 현 ▲황선근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성호 ▲김시경 ▲오봉국
▲원정연 ▲정석효 ▲정윤철

◇문리과학대학

▲김현국 ▲권희조 ▲김태길
▲김태진 ▲도준호 ▲신효순
▲안규백 ▲오희필 ▲원용재
▲윤하정 ▲문필일 ▲이정석
▲정준호 ▲전석숙 ▲정낙진
▲정양모 ▲정영의 ▲최규철
▲현영수 ▲현영우 ▲현영원
▲황인광

◇미술대학

▲박숙희

◇법과대학

▲김재홍 ▲고문순 ▲공노병
▲김동원 ▲김상훈 ▲김원진
▲김동식 ▲김정명 ▲김희식
▲노승길 ▲명로승 ▲박 만
▲박길수 ▲박영우 ▲박주선
▲박현식 ▲박기문 ▲백영엽
▲손기식 ▲송상현 ▲신통희
▲신상순 ▲김만준 ▲양인석
▲양희영 ▲유덕택 ▲유대현
▲이강환 ▲이동준 ▲이시복
▲이시은 ▲이장식 ▲이재우
▲이정환 ▲이창식 ▲이희규
▲임두빈 ▲임상준 ▲인재홍
▲정영하 ▲전유철 ▲정인규
▲정인환 ▲재동철 ▲조진호
▲조순형 ▲조영식 ▲차정일
▲최병환 ▲최문상 ▲하일부
▲한영철 ▲정성재 ▲황병호
▲홍병환 ▲홍재성 ▲홍주영
▲최진호

◇사범대학

▲고영희 ▲김학희 ▲남호범
▲노두호 ▲민우일 ▲민재이
▲박노민 ▲박세원 ▲박수용
▲박찬도 ▲신동래 ▲신철순
▲신한우 ▲오정환 ▲유정근
▲유서영 ▲이상주 ▲이인규
▲정광현 ▲정병환 ▲정병배
▲정관현 ▲조진상 ▲홍성오
▲홍정식

◇상과대학

▲고학도 ▲권혁승 ▲김 태
▲김종태 ▲김재관 ▲김종국
▲김현곤 ▲김형민 ▲김병윤
▲민해영 ▲박길배 ▲박병준
▲박상운 ▲박영배 ▲박정운
▲신영환 ▲신찬수 ▲심재석
▲어 준 ▲유병인 ▲유호기
▲윤규선 ▲이경재 ▲이기석
▲이범기 ▲이봉서 ▲이정석
▲이준영 ▲이태규 ▲임재수
▲정문진 ▲정의동 ▲정희영
▲조외진 ▲조학국 ▲최동수
▲최수영 ▲표계영 ▲허 석
▲홍성환

◇생활과학대학

▲조문자

◇수의과대학

▲김진규 ▲이영덕 ▲정원광

◇약학대학

▲김동준 ▲김영택 ▲김영호
▲김용정 ▲김재관 ▲김진호
▲남준우 ▲유준규 ▲윤광철
▲이강수 ▲한병진 ▲한상우
▲홍성환

◇음악대학

▲김 민 ▲김정자 ▲양은희
▲조상민

◇의과대학

▲김근우 ▲김상우 ▲김인원
▲박성규 ▲박상호 ▲오봉희
▲유정상 ▲유진우 ▲윤수경
▲이도영 ▲이동철 ▲이병덕
▲이성준 ▲한정철

◇치과대학

▲김기봉 ▲김기국 ▲김세동
▲김재근 ▲문정광 ▲민병일
▲박경기 ▲백순지 ▲변석두
▲손동수 ▲신정균 ▲신정훈
▲이성복 ▲이용우 ▲임준우
▲정지영 ▲정재영 ▲황오현

◇대학원

▲김동진 ▲안영섭 ▲이남기
▲김재희 ▲김정현 ▲박은숙
▲이미형 ▲최영희

◇경영대학원

▲양승현 ▲임영복 ▲정일재

◇보건대학원

▲김광현 ▲김종오

◇사범대학원

▲정영희

◇신문대학원

▲서강희

◇행정대학원

▲노석호 ▲서재근 ▲오자복
▲정우택 ▲조석우

◇최고경영자과정

▲남준석 ▲인동선 ▲유상남

▲전문대학

◇최고산업전력과정

▲이은준

일반

◇인문대학

▲김남주 ▲김덕출 ▲김선아
▲김세영 ▲김일배 ▲김종현
▲류재용 ▲박상용 ▲백기훈
▲송재봉 ▲우득정 ▲유용선
▲유재호 ▲이승훈 ▲이승희
▲이종수 ▲임준규 ▲정준모
▲최석준 ▲한정우 ▲홍종선
▲황사광

◇사회과학대학

▲강경희 ▲강명식 ▲고희석
▲권우영 ▲김 안 ▲김경호
▲김계수 ▲김광재 ▲김남우
▲김신성 ▲김영남 ▲김정현
▲도종윤 ▲류동민 ▲박광수
▲박성환 ▲박성용 ▲박영준
▲박용선 ▲서석진 ▲신병
▲송도준 ▲송성욱 ▲송영달
▲송유철 ▲심일혁 ▲안창호
▲양우진 ▲유우규 ▲유우규
▲이건희 ▲이병현 ▲이성원
▲이원수 ▲이준호 ▲정성재
▲전정남 ▲정상우 ▲정성진
▲정석배 ▲정택진 ▲조도성
▲조원균 ▲천석기 ▲최우희
▲최정규 ▲한 신 ▲전경호
▲한규진 ▲허 영 ▲홍철민
▲홍탁균

◇자연과학대학

▲강성구 ▲김인식 ▲김찬중
▲김호선 ▲박광환 ▲박유나
▲서환우 ▲송대영 ▲유병희
▲유영환 ▲이 유 ▲이원호
▲임기건 ▲임상영 ▲조관호
▲주정경 ▲채광수 ▲황병현

◇간호대학

▲김 숙 ▲김진애 ▲김영자
▲김재희 ▲김정현 ▲박은숙
▲이미형 ▲최영희

◇경영대학

▲김상현 ▲김세연 ▲김영기
▲김재일 ▲김진택 ▲김철우
▲김정현 ▲김정현 ▲박은숙
▲박병환 ▲박성환 ▲박우현
▲정병현 ▲신상우 ▲안일근
▲윤용수 ▲이세용 ▲이승훈
▲전재영 ▲조현택

◇공과대학

▲강병환 ▲강문식 ▲강승우
▲고국원 ▲고상철 ▲권기수
▲권기태 ▲권영국 ▲권영식
▲권오동 ▲권오동 ▲권정태
▲권대길 ▲권해욱 ▲김정수
▲김정현 ▲김기남 ▲김기세

▲김기현 ▲김동근 ▲김동욱
▲김동진 ▲김동준 ▲김동준
▲김명민 ▲김민수 ▲김성원
▲김성태 ▲김성도 ▲김성민
▲김순민 ▲김희희 ▲김시근
▲김양성 ▲김연섭 ▲김영환
▲김영모 ▲김영웅 ▲김영웅
▲김용기 ▲김용식 ▲김용철
▲김용희 ▲김원명 ▲김원태
▲김익희 ▲김인수 ▲김재범
▲김재희 ▲김재현 ▲김재현
▲김정희 ▲김정민 ▲김정환
▲김준호 ▲김진국 ▲김태욱
▲김한철 ▲김희준 ▲김희배
▲김홍민 ▲나종태 ▲남궁욱
▲남시도 ▲김정수 ▲남지희
▲노의석 ▲최규진 ▲문근주
▲민병선 ▲박진우 ▲박규진
▲박기범 ▲박기현 ▲박민철
▲박상도 ▲박상진 ▲박성준
▲박용철 ▲박정일 ▲박준수
▲박찬호 ▲박현민 ▲박철순
▲박형준 ▲박종균 ▲박성기
▲방서호 ▲방영일 ▲배주찬
▲백현철 ▲백문석 ▲백봉근
▲백영환 ▲백영환 ▲변창준
▲서영호 ▲석기봉 ▲석영수
▲신우식 ▲성낙규 ▲송석훈
▲송의석 ▲송 진 ▲송진호
▲송기원 ▲송영석 ▲송재환
▲송정근 ▲신인환 ▲신태환
▲신현석 ▲신현철 ▲신희준
▲심영선 ▲심재진 ▲안동민
▲안우영 ▲안오영 ▲안동민
▲양윤환 ▲양영환 ▲양영환
▲염국진 ▲오정수 ▲오정택
▲오창기 ▲오해석 ▲오병철
▲위영인 ▲유정동 ▲유태용
▲유태환 ▲유희정 ▲유영환
▲유현기 ▲황동준 ▲홍요기
▲은근수 ▲이건정 ▲이건희
▲이경희 ▲이광우 ▲이광희
▲이동수 ▲이명규 ▲이병호
▲이병수 ▲이성은 ▲이세도
▲이예민 ▲이우현 ▲이원규
▲이은우 ▲이인수 ▲이정우
▲이재택 ▲이종길 ▲이종태
▲이종섭 ▲이종수 ▲이종택
▲이태호 ▲이태호 ▲이희정
▲이현수 ▲이희정 ▲임동민
▲임배수 ▲임상진 ▲임종준
▲임진배 ▲장우희 ▲장우환
▲장학원 ▲정호진 ▲정병태
▲전은택 ▲정규준 ▲정규준
▲정성문 ▲정성복 ▲정성환
▲정영근 ▲정재근 ▲정지수
▲정진건 ▲정하성 ▲정병태
▲조강욱 ▲조백현 ▲조병문
▲조성용 ▲조원환 ▲조원준
▲조철재 ▲진조현 ▲진종민
▲재수준 ▲최 인 ▲최광준
▲최동욱 ▲최희희 ▲최일남
▲한계성 ▲한관수 ▲한기석
▲한상식 ▲한진현 ▲한진진
▲한승호 ▲한준호 ▲한재철
▲홍도준 ▲홍영환 ▲홍오환

원 계 : 55,297,360원
 인쇄비 : 10,000원
 총 계 : 594,082,826원
 +14,500 \$
 +700CAD

PDF & E-book Design HANWOOISJM

PDF & E-book Design HANWOOORISJM



동창회보를 읽고

의식개혁 가져오는 작은 씨앗되길

「동창」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무엇 보다도 학창시절에 대한 애뜻한 추억으로, 젊은 꿈과 희망, 고민과 좌절 등 그 시절에는 누구나 겪게 되는 성장의 진통을 이제는 담담히 되돌아보면서 「기쁜 우리 젊은 날」로 되돌아 가보는 것도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개인적 감상 외에도 「동창」하면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일종의 소속감 내지 연대감이라 하겠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물며 온갖 무한한 가능성이 앞에 펼쳐진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며 그에 대한 연대감을 느낀다는 것은 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매달 동창회보를 받고 동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직접 아는 동문이 아니라더라도 반갑게 느껴지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창회보가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기준보다는 「사회적 존경」이라는 잣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해당하는 동문을 더 많이 찾아내어 소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 하는 바람을 느낀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 정진해 나가는 동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 분야에 투신한 동문들을 비롯해서, 그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건재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해 볼 수 있음을 알게 해주면 어떨까 한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는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서나 성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다. 또한 존경받는 동문이 많아질수록, 서울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가지 더 바라다면 동창회보가 한달에 한번 한정된 독자층을 상대로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지면을 넓혔으면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 문제에 관해 동문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가능하면 토론회정도 거쳐 하나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동창회보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동문의 투고 등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사회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편집진의 기획 기사 연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요즘 가끔씩 예기 되는 「Noblesse Oblige」같은 주제가 적잖았 것 같다. 동창회보가 이미 실고 있는 특정 동문에 관한 기사 외에도, 역사를 통해 이미 보편화된 교훈적 사례들을 찾아서 실는다면, 「누가」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라는 일반성을 띠게 되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로열의 조카 작품으로 잘 알려진 1백년 전쟁 배경의 칼레의 시민 지도자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자주 인용하고 있지



白靑(78년 人文大學)
한국 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

만, 진부하다는 느낌 대신 그 시대를 뛰어 넘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숙연한 감동을 준다.

너구나 서양뿐 아니라 우리 나라 역사 속에도 Noblesse Oblige의 훌륭한 전통이 이미 몇 백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어떤 학자의 책을 강연 강제 읽으면서 이런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면 참 좋겠다고 느꼈던 몇 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배우고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서울대 동문들을 독자로 하는 동창회보에 이러한 내용들을 발굴하고 연재함으로써,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용한 의식개혁을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동창회보가 동문들의 군함을 알려주는 통상적인 소식지의 범위를 넘어 일정 부분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동문의견 수렴 해결한 제시해야

「Noblesse Oblige」같은 주제가 적잖았 것 같다. 동창회보가 이미 실고 있는 특정 동문에 관한 기사 외에도, 역사를 통해 이미 보편화된 교훈적 사례들을 찾아서 실는다면, 「누가」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라는 일반성을 띠게 되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로열의 조카 작품으로 잘 알려진 1백년 전쟁 배경의 칼레의 시민 지도자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자주 인용하고 있지

귀중한 자료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



金壽豪(93년 美大卒)
덕원예고 교사

이 글을 쓰기 위해 4~5년 전부터 무심코 보고 쌓아 두었던 동창회보를 찾아보며 며칠을 고생했다. 그냥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갔었던 동창회보와 동창회 사이트를 다시금 꼼꼼하게 보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떠올라지는 것들이 있어 몇 글자 적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

동창회보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글자체와 광고 사진에 대한 것이다. 글자체에 대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해 다소 산만한 느낌을 준다. 글자체를 1~2가지로만 정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글자체를 사용해서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창회보에서 필요한 것만을 보고 말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모르겠다.

그리고 글자를 칸이나 박스에 넣어 음영 처리하는 것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이는 강조의 의미는 있었지만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동창회보의 페이지마다 위에 있는 「서울大同窓會報」에 박스를 걸어내고 그냥 글자만 썼으면 하고, 동창회 사이트에는 「서울大同窓會報」라는 글자 색을 파란색 계통의 남색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또한 지면을 위해 비워 너무 부담 가는 크기의 광고사진으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느낌이 든다. 어쩌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동문들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동문들의 정보를 나누는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 강조되는 느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하나의 방법으로 동창회에서 많은 광고주를 받아 광고에 지면이 적절할 크기의 사진과 보다 많고 유익한 광고와 내용,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촌화된 시대에 맞게 각 국가별로 동문들을 찾아 해당국의 문화와 풍습을 현지어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번역하여 나타내는 칸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각 국의 관광명소를 시리즈 형태로 지속적으로 연재한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용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간단히나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곳에 거주하고 계신 동문들의 활동상과 여행 정보를 알 수 있어, 동창회보도 매우 귀중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창회보가 한번 보고 가는 구성으로 내리글리보다는 잘 보관하려는 관심이

해외거주 동문 활용에 각국 문화·풍습 소개했으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식으로는 각 단과대별로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동문들을 찾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각 전공별로 중요한 업적을 획득한 동문들의 미담이나 진술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동창회보에 사는 작은 감동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지금의 동창회보는 대체로 정치에 관련한 동문들의 통제가 처음부터 소외되어 보기에 부담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문들의 간단한 동정보다는 학술이나 문화적인 면을 확대하여 새로운 논문 또는 저술이나 발표와 과정에 나타나는 사이드 또는 휴먼 스토리 등을 소개하여 어떠한 정보나 자료, 또는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동창회보가 됐으면 한다.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건강이 중요시되는 요즘 각 지역별 그리고 분야별로 인정받는 동문들의 전문적인 진료과목이나 병원을 소개하여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병원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적다 보니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 별로 없어 추가를 한다면, 지난 한 해 심각한 교육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주체들이 사심을 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과 진보가 공존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함께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사회가 됐으면 한다. 이는 마치 같은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릴 때 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듯이, 서로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며 추구하는 데에 있어 살아있는 학교의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NEIS나, 교육이민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해당되는 집단의 이기심이 더 많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고 과정은 공정한 규칙에 의하여, 결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사회가 됐으면 한다.